

“성공한 귀농’이요? 땀 흘리는 것부터 배워야죠”



청년이 미래다

〈16〉 귀농 3년 ‘늘푸른 농원’ 김준한 대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상당수가 무턱대고 귀농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땀에 땀이 나는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경험을 쌓고 난 뒤 투자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최근 영업맨에서 약초꾼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이가 있다. ‘늘푸른 농원’ 김준한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귀농 3년차인 그는 강진군 강진을 학명리에 있는 자신의 농원 비닐하우스(1322.3㎡·400평)에서 약용식물 묘목 재배 및 생산 가공제품들을 판매한다.

400평 크기의 비닐하우스엔 황칠·흑노호·먹나무 등이 있는데, 이를 재배·판매한다. 그는 지난 2015년 귀농한 이후 황칠묘목 등을 재배해 이듬해인 지난해 3000만원의 첫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요즘 파파야·슈가에플·잭프루트·아보카도 등 열대과일 재배법에도 취미를 붙였다. 황칠 등 본업을 마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우스 안 별도 공간에 마련된 33.05㎡(10평) 크기의 열대과일 묘목밭에 붙어 있다.

강진의 토양·기후 등에 가장 적합한 특용작물이 무엇인지 알아내 5년 후 직접 재배하기 위해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다.

그는 이곳에서 각종 열대과일 묘목을 심은 뒤 자라는 기간과 적절한 온도·습도, 토질 등을 연구·실험 중이다.

그는 성공한 귀농인이 되려면 농촌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선정한 작목에 대한 최소한의 노하우와 향후 전망 등까지 사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는 그가 몸에 땀이 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다. 최소한의 경험조차 하지 않고선 정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강진이 고향인 그는 2년 전 광주에서 유명 제약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중 중병을 앓게 되면서 귀농을 결심했다.

질병치료와 휴식이 귀농의 절대적인 이유였다. 그는 귀농 직전 강진에 작은 집터를 마련했는데, 당시 집주인이 건넨 황칠을 우연히 먹고 난 뒤 몸이 건강해진 것을 알게 됐다. 통원치료를 받던 광주 모 대학 병원에서조차 놀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계약회사 영업부장 하다

질병 치료차 찾은 강진서

황칠 먹고 건강 되찾아

약용식물 생산·가공 3년

직거래로 올 1억 매출 기대

미래 위해 열대과일 재배 도전

준비없는 귀농 실패확률 높아

달콤한 성공스토리 좇지 말고

자기만의 방법 찾게 공부해야

그는 집 인근에 작은 하우스를 마련한 뒤 황칠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후엔 흑노호 등 약용식물 종류를 점차 늘려갔다. 이 과정에서 강진군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제품홍보 블로그 개설과 유기농기능사 및 종자기능사 자격증 취득 등 각종 귀농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는 “군이나 기술센터에 다양한 귀농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도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우선 재배 작물을 선택했다면 재배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찾아 교육을 받으면 된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욕심은 실패를 부르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여유 있는 삶과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시골을 찾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며 ‘준비없는 귀농’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처음부터 무리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정보를 쌓으면서 귀농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농사가 쉽습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무턱대고 투자부터 했다가 빚더미에 오른 사람이 수도룩합니다. 사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농사는 좀 위험한 선택”이라며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귀농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실패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에 약용식물 비닐하우스 인근에 약용식물 가공공장을 짓고 있다. 가공공장이 완성되면 황칠 등 대량 생산해 시중에 판매할 계획이다. 또 향후 미래를 위한 열대과일 재배시도도 꾸준히 할 예정이다. 그는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 노후에 대한 삶이 이곳에 점점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본격적인 작물이 나온 지난해부터 제법 입소문 난 농가가 됐다. 주위 귀농자들이 인터넷 홍보에 열을 올릴 때 그는 좀 다른 전략을 세웠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직거래를 통해 황칠 등 가격을 다운시킨 것이다. 시골에서 직접 키웠다는 소문이 나면서 재배한 묘목이나 즙 등을 구매하겠다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이 대표는 “최근 많은 젊은 청년들이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하는 사례가 많은데, 준비없는 귀농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달콤한 성공 스토리만 보고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성공하는 귀농에는 노하우가 있어야 하니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



귀농인 김준한씨가 지난 10일 강진군 강진을 학명리 약용식물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재배한 흑노호를 바라보며 흐트한 미소를 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귀농·귀촌 성향 자가진단법
- ① 아직 건강이나 사회생활에 자신이 있다.
- ② 시골에 내려가 사는 상상을 자주 한다.
- ③ 시골살이의 정보 수집을 100시간 이상 했다.
- ④ 귀농·귀촌 관련 모임을 3개 이상 알고 있다.
- ⑤ 혼자보다는 공동으로 일하는 게 더 좋다.
- ⑥ 자연과 접하는 전원생활을 좋아한다.
- ⑦ 동식물을 직접 키우고 싶다.
- ⑧ 낯선 이들과 어울리거나 사귀는 게 가능하다.
- ⑨ 실내보다 야외에서 움직이는 게 더 좋다.
- ⑩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과도 잘 지낸다.

5~7개 해당 땐 시골살이 적합해요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왔을 한적한 시골에서의 노후생활. 그러나 선분부 귀농·귀촌은 실패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도시’ 혹은 ‘시골’ 중 어느 곳에 적합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 컨설턴트가 제시한 ‘귀농·귀촌 성향 자가진단법’을 알아보자. 나는 도시형인가? 시골형인가? 먼저 아

래 10개 항목 가운데 몇 개나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아직 건강이나 사회생활에 자신이 있다. ▲시골에 내려가 사는 상상을 자주 한다. ▲시골살이에 대한 정보 수집을 100시간 이상 했다. ▲귀농·귀촌 관련 모임을 3개 이상 알고 있다.

▲혼자보다는 공동으로 일하는 게 더 좋다. ▲자연과 접하는 전원생활을 좋아하는다. ▲동식물을 직접 키우고 싶다. ▲낯선

이들과 어울리거나 사귀는 게 가능하다. ▲실내보다 야외에서 움직이는 게 더 좋다.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과도 잘 지낸다.

귀농·귀촌 전문가들은 “테스트 항목 중 해당 개수가 4개 이하라면 도시 생활에 더 적합한 성향”이라며 “귀농·귀촌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해당 개수가 5~7개라면 ‘시골 살이’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귀농·귀촌 전문가들은 5~7개의 경우 안정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누릴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틈틈이 (귀농·귀촌) 관련

정보 습득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귀농·귀촌 후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선 교육 후 귀농을 결정하는 한편 소박하게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면서 “특히 인생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살아온 귀농·귀촌민들은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친해지는 것이 중요해. 이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과 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